단독주택 가격 광주·전남만 제자리

광주 0.1%·전남 1.2%↑그쳐…전국 평균은 4.3%

남구 월산동 4억2천만원·순천 조례동 3억 최고가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34% 올랐으나 광주·전남지역은 지난해 집값 하락 등의 여파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공시가격이 0.12% 올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전남도 1.28% 상승에 그쳐 상대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뚜렷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34% 올랐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 각각 6.99%, 5.81% 오르는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등록세 등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나머지 시·도의 상승률은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광주·전남은 각각 0.12%, 1.28% 상승에 그쳐 세부담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지역 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1% 떨어졌으며, 북구와 남구도 각각 0.85%, 0.74% 하락했다. 광주의 표준주택 수는 4천195가구로 전국의 2.1%에 불과하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남구 월산동 소재 가옥으로 4억2천400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남구 구소동의 주택으로 424만원에 불과했다.

가격대별로는 5천만~1억원의 주택이 51.5%(2천15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2천만~5천만원 33.3%(1천399가구), 1억~2억원 9.6%(402가구) 등이었다.

전남은 표준주택 수가 2만1천286가구로 전체의 10.6%로 경북,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순천시 조례동의 단독주택으로 3억300만원이었고, 최저 가격은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의 주택으로 67만2천원 수준이었다.

한편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36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여수 토지 거래 늘고 땅값도 올라

광주는 여전히 안정세

지난해 광주는 토지거래가 감소하고 땅값도 안정세를 보인 반면, 전남은 여수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땅값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3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7년 토지거래량 및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249만64필지로, 2006년에 비해 12.5%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토지거래가 25.7% 줄어든 것을 비롯, ▲서울(-25.2%) ▲경기(-21.5%) ▲대구(-24.2%) ▲대전(24.7%) 등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남은 여수와 나주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8.4% 늘었으며, 인천과 울산도 각각 10.1%, 8.5% 증가했다.

땅값도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3.88%로, 2006년(5.61%)보다 크게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88%로 가장 높고, 인천(4.85%), 경기(4.22%)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연간 땅값 상승률이 0.94%, 1.30%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남은 여수의 땅값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0.92%, 1.09% 올라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이후 두 달째 급등세를 이어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김 원료값 급등

타르 피해…영광굴비·숭어회 가격 하락, 소비 줄어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타르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서 김 원료 가격이 오르고 겨울철 별미인 숭어회와 영광굴비 소비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타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과 영광·신안 지역에서 물김 채취가 중단되면서 공급량 부족으로 김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물김 60㎏의 경우 타르 유입 전 6만5천 원에서 최근 7만 4천 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무안 김의 경우 타르 유입 전 1속(100장)에 4천200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4천5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서남해안의 별미로 각광을 받았던 숭어회가 타르 유입 후 판매가 부진하면서 숭어 1㎏당 거래 가격이 타르 유입 전 5천 원에서 최근 4천 원으로 20% 하락했다.

또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던 영광 굴비 가격은 예전과 다름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지역 대형 백화점에서 작년 대비 5% 정도 판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남도는 타르 유입 이후 겨울철 별미인 숭어가 제철임에도 판매가 부진하자 31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숭어 시식회를 갖는 등 소비촉진에 나섰다.

/채희종기자 chae@

기아차 '주간 2교대제' 도입

내년부터 시행 노사전문위 출범

기아자동차㈜가 2009년 도입 예정인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노사상생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기아차는 30일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조남홍 기아차 사장과 김상구 지부장을 비롯해 노동분야 전문가, 기아차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전문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노사전문위원회는 노사측 각 8명의 관계자는 물론 노사가 각각 4명씩 추천해 선정한 8명의 노동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연구활동에 들어간 기아차 노사전문위원회는 소하리공장 인근 사무실에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주간 연속 2교 대제 운영방안 논의, 선진업체 사례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 종업원 설문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노사전문위원회는 노·사·전문위 3자 회의를 통해 공동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형태 ▲임금체계 개선 ▲생산량 ▲협력업체 등 총 4개 분과로 나눠 세분화된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도 9월 와이브로 서비스

KT전남본부, 전남대에 첫 핫존(Hot Zone) 구축

올 9월이면 광주에서도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KT전남본부(본부장 송기유)는 30일 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와이브로를 오는 9월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대에 핫존(Hot Zone)을 구축해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핫존은 중계기가 설치된 일정반경(3~4㎞) 안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전남대와 수도권에서의 와이브로 활용도를 봐가며 시설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T전남본부는 인터넷TV인 메가TV가와 인터넷전화 등 신성장동력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들 신성장동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 작업에 총 시설투자규모 1천205억원 가운데 80%인 965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메가TV 196억원, 인터넷전화 52억원 등 광가입자망(FTTH) 보급율 확대를 위해 295억원을, 백본망 고도화에 555억원을 투자한다. 또 114억원을 들여 섬이나 산간오지 543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한다.

송기유 본부장은 "지역 IT선도기업으로써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F 청소년 SMS 요금 인하

KTF는 2월1일부터 청소년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기존 20원에서 15원으로 25% 인하한다.

KTF 30일 "올해 초 SMS 요금 인하를 시행하면서 그 때 제외됐던 청소년과 복지요금 이용자도 2월1일부터 기존 20원에서 25% 내린 15원을 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KTF는 또 '알' 단위를 환산하는 데 불편을 덜기 위해 기존 1알을 10원으로 계산했던 것을 1알을 1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광주시 동구 KT 광주정보통신센터 정문 앞에서 '고향사랑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장터'를 열고 30여종의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5~15% 값싸게 판매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설 성수품 가격 안정

조기 공급 사과·배 소폭 올라

성수품 공급 확대에 힘입어 설을 앞둔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과·배 등은 상승폭이 다소 높아 필요시 조기공급 및 추가 공급확대가 추진된다.

30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설 성수품 공급 및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29일 기준으로 사과 10개의 가격은 2만1천587원으로 6일 전인 23일의 2만763원에 비해 4% 상승했다.

배 10개의 가격은 같은 기간 2만4천270원에서 2만4천956원으로 2.8% 올랐고, 조기 5마리는 1.8% 상승한 2만4천124원이었다.

계란(0.9%), 대추(0.8%), 밤(0.4%), 오징어(0.1%) 등의 가격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무(-7.5%), 돼지고기(-5.9%), 배추(-4.0%), 쇠고기(-1.7%), 명태(-1.5%), 닭고기(-1.2%), 갈치(-1.2%), 귤(-0.8%), 쌀(-0.2%) 등의 가격은 하락했다.

/연합뉴스

장성 신품종 방울토마토 '도토리' 인기몰이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윤순천 농가가 신품종 방울토마토를 출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윤순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800평 규모에서 '도토리〈사진〉'라는 방울토마토 품종을 재배, 광주시 각화동 광주 원예농협에서 주 2회씩 출하하고 있다.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당도와 저장기간에서 3배 이상 높고 색깔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일반 제품이 5kg 1박스당 1만5천원인데 반해 5천원 많은 2만원에 판매된다. 문의 (062) 973-3082~4.